

## 오피니언

## 월/요/광/장

한 희원



이른 아침, 도시의 거리를 거닐면 지난 밤새 잠들어 있던 정신을 깨우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 출근을 하기 위해 길은 녹음으로 변해가는 은행나무가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김밥 만드는 아줌마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면 구두 고치는 아저씨가 길거리에 간이역처럼 만든 가게문 여는 소리가 화음을 맞춰 들려온다. 세탁소 아저씨도 미용실 아가씨도 부산을 떨고 거리에서 과일 파는 얼굴이 겸게 탄 아줌마도 거의 하루를 거르지 않고 그 모습으로 서 있다.

이른 아침 삶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서민들의 삶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얼마 전 오랜만에 몇몇 동창들을 만났었다. 이제 50대 중후반에 들어선 친구들의 모습에서는 어릴 적 고교시절의 청춘의 모습은 간데없고 서리가 하얗게 내린 반백의 머리에 짙은 주름들이 서로의 모습에서 인생의 애환을 보는 것 같았다.

씁쓸한 소주 한 잔의 정답은 숨막히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가려는 중년의 자화상이었다.

이런 우리들을 요즘은 베이비부머라고 말한다 베이비부머는 베이비 불세대를 말하는 미국 용어로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종전 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 도

모습이 이제는 밝지만 않은 것 같다. 조기 은퇴를 강요받는 고통 속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없는 처음 세대가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말들은 수많은 현장을 혼자나온 격변기 속의 드라마 주인공들을 아프게 한다.

베이비부머들의 평균 자녀 수는 2명 정도이고 93.1%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자녀에 앞으로 몇 년간은 대학졸업과 자녀결혼 등 가정경제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부모들은 79.8%가 자신이나 배우자 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있어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끼인 세대' 즉 샌드위치

이렇게 어렵게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부지기수여서 졸업한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니 답답한 일이다.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문제도 자녀의 취업과 겹치게 되어 자녀와 취업경쟁을 해야 할 판이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대학 등이 서민의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 해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자금 융자를 얻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사회생활의 초반부터 빚더미에 앉은 것은 희망을 잃은 고통의 모습이다.

이른 아침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분주히 걷는 수많은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백성의 행복만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았던 철인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정신이 그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격변기의 역사 속에서 산업을 일궈낸 베이비부머들의 드라마가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대해 본다. 베이비부머들이여, 우리의 친구들이여 서리 내린 반백의 바람에 흘러내린 날에도 우리 손 맞잡고 걸어가자. 아빠의 청춘을 목이 터져라 부르르...

〈서양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베이비부머 그리고 아빠의 청춘

입직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713만 명을 일컫는다. 전쟁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격변기 속에서 경쟁과 가난의 고통을 통과하며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주역들이다.

유신과 군사독재, 가파른 경제성장과 IMF충격 등 수많은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일구어낸 드라마로 말하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모양의 압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요즘 베이비부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비와 취업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은 자율화에 맡긴 시기부터 해마다 상승하여 2000년 초 사립학교에서 400만 원 가량했던 등록금이 지금은 600~7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대학을 두 명 정도 보내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융돈 까지 합하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노후준비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감히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범인(凡人)인 나도 각자 사연을 가진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나면 '인생은 왜 이리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아마 신은 이런 내게 더 열심히 재판하고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법률이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다. 사실 그 외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오늘도 법정에 나왔다가 뒤돌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기도를 한다. 부모가 가난해도 그의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돈은 없지만 가정에 화복이 깃들기를,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 없기를, 늙고 병들었을 때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상태에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란다.

〈광주지방법원 제20민사단독 판사〉

## 법조칼럼



정한근

## 나의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세상

지지 않아 오랜 기간 시달리고, 심지어 채무자가 사랑해 어린 자녀나 늙은 노부모가 이를 상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대부분 상속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만 말이다.

재판 중 이런 피고들을 만나게 되면, 피고의 그간의 삶과 아이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인생의 파도, 자식을 먼저 보낸 노부모의 고단한 여생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마음이 아프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돈을 빌려 준 측의 채권자도 힘들고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상대방을 믿고 어렵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은 겪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사나 일을 시켜 놓고 공사대금이나 월급을 주지 않다가 체불에 친 하도록업자나 직원이 뒤늦게 소송을 하면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같은 채권의 경우 대개 소멸시효가 3년이다.

오히려 채권자가 생활고에 빠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단순히 채무자를 동정할 것도 아니다.

수단 남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 쓴 '목상'이라는 노래에는 '주위와 굽주립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당신은 보고만 있느냐'라고 신에게 묻는 구절이 있다.

력, 그리고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개구쟁이 같은 활력을 새롭게 엿보는 기회가 됐다.

노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또한 여분의 시간도, 마감하는 시간도 아니다. 발전하는 새로운 시간이다.

한 예가 있다. 직장을 정년퇴임한 어떤 이가 인사자 노스승을 찾았다. 노스승은 자신을 찾아온 예순이 넘은 재자에게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자네 참 좋은 나이네. 내가 자네 나이라면 못 할 것이 없겠네."

은퇴해서 무언가 결말을 지었다고 스승을 찾은 이 사람은 번개를 맞은 듯 번쩍 깐느낌이 들어 젊어서 못 배웠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열렬히 생각하고 찾아 실천하게 됐다고 한다.

노년의 시간적, 정서적 여유로움은 큰 선물이다.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얼마든지 깨내볼 수 있는 시기다.

'나'를 알아가고 '사랑'을 다시 배우는 노인건강타운에서의 생활은 필자에게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외쳐본다. "나이야 가라"가 아닌 "나이야 오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본부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돈과 대출금으로 가게를 열어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거나 가장이 실직을 하면, 보통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이 같이 생긴 빚은 노력해도 쉽사리 갚아

## 기고

## 나이야가라, 나이야 가라

큰 소리로 환호하는 얼굴은 평균연령 70대 어르신들이 아니었다. 영락없는 개구쟁이 학생들이었다.

퀴즈에서 먼저 탈락해 객석으로 돌아온 친구가 남은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를 향해 입 모양으로 답을 말하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는 등 진풍경도 많은 행사였다.

그 며칠 전 열렸던 '어르신 백일장' 또한 의미깊었다. 타운 잔디밭에 옆드린 어르신들이 높이 떠오른 태양의 열기도 잊은 채, 글감을 궁리하고 초고를 완성하여 편지지에 옮겨 적는 모든 과정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내용 또한 감동적이어서 광주문인협회 회장으로 구성된 두 심사위원을 눈물로 만들었다. 주제는 '가족사랑', 제목은 '밥상' '동반자' '지팡이' 등 하니였다.

골든밸퀴즈에서 알쏭달쏭한 문제들에 고개를 가로거리며 OX코너를 헤매고, 스케치북에 쓰인 자신의 답이 정답임을 확인하자

은 읽는 이를 사로잡아 깊은 공감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 백일장에서 많이 거론된 소재는 어머니였는데, 나이·배경·불문으로 부모자식 간의 무구하며 원시적인 사랑은 눈물을 솟구치게 했다.

또한 동반자인 아내에 대한 고마움, 멀리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향한 애틋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글의 기교를 떠나 마음에 파문을 남겼다.

어머님에 대한 회한, 며느리에 대한 죄심, 같이 늙어가는 친구에 대한 우정, 그 모든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면 될 것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시니어모델대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상상 이상의 생동감과 세련된 자기표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반면 이번의 백일장과 골든밸에서는 어르신들의 진지한 학구열과 진솔한 표현

력을, 그리고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개구쟁이 같은 활력을 새롭게 엿보는 기회가 됐다.

노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또한 여분의 시간도, 마감하는 시간도 아니다. 발전하는 새로운 시간이다.

한 예가 있다. 직장을 정년퇴임한 어떤 이가 인사자 노스승을 찾았다. 노스승은 자신을 찾아온 예순이 넘은 재자에게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자네 참 좋은 나이네. 내가 자네 나이라면 못 할 것이 없겠네."

은퇴해서 무언가 결말을 지었다고 스승을 찾은 이 사람은 번개를 맞은 듯 번쩍 깐느낌이 들어 젊어서 못 배웠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열렬히 생각하고 찾아 실천하게 됐다고 한다.

노년의 시간적, 정서적 여유로움은 큰 선물이다.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얼마든지 깨내볼 수 있는 시기다.

'나'를 알아가고 '사랑'을 다시 배우는 노인건강타운에서의 생활은 필자에게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외쳐본다. "나이야 가라"가 아닌 "나이야 오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본부장〉

## 여수박람회·광주U대회 앞둔 지역민 공공질서 의식 아쉽다

로수 밀은 물론이고 생활정보지 보관함도 재벌이로 변해 있다.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카드함도 재벌이가 된 오래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장소나 길거리 어디에든 빨어져 있는 가래침, 공원 벤치에 버려두고 간 빈 종이컵과 심지어 어린아이 일회용 기저귀 등.

식당은 어떤가. 식탁의 빈병과 밥그릇, 물수건 등이 모두 재벌이로 변해 있다.

담배꽁초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빈병 만 한 해에 1억 병이라고 한다. 올림픽과 월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2-628/FAX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친환경 농업 위협하는 명해충 대책 세워야

최근 중국에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을 전염시키는 애벌구 등 명해충이 기류를 타고 대량으로 날아옴에 따라 전남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반 벼 재배면적의 34.8%를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전남지역 농민의 경우 방제비 증가는 물론 수확량 감소 등 부담이 수밖에 없어 걱정이 터진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국 690개소의 벼 명해충 관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남 5327ha 등 전국 3만7443ha에서 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5배나 많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명해충 발생 비율에 견주면 41% 수준이다. 전남은 지난 2009년 1907ha가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로서는 겁 시름이 아닐 수 없다. '불량 벼씨'로 한 차례 흥역을 치른 데 이어, 또다시 '병해충' 부담까지 떠안게 된 때문이다.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민들은 더욱 타격이 크다. 명해충 방제

정부는 불량 벼씨 보급으로 인한 피해 면적을 과학적 보상책을 내놓는 것 만이 그나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길이다.

이번 아침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분주히 걷는 수많은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백성의 행복만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았던 철인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정신이 그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의 여파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체 사립대의 15%에 이르는 부실 사립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에 대해서도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소한 55개 이상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족각을 골고루세우고 있다. 재정난과 학생 수감소 등으로 부실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당수 지역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등록금 경감과 더불어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것을 환영한다. 부실대학은 털어내고 지방 국립거점대학 특성화 대학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줄고 국토균형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 無等鼓

이름을 걸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에 주목하는 사람들로 늘고 있다. 농산물이 생산지로부터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